

기술이전 → 사업화 → 대학벤처투자 → 발전기금 기부

산·학相生 새 길 열었다

바이오 기업 '굿센' - 전남대 모범사례 만들어

'기술이전→사업화→대학벤처투자→발전기금기탁'

대학과 한 바이오 벤처기업이 기술이전과 투자를 주고받는 화합의 릴레이를 펼쳐 화제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인 (주)굿센은 최근 2년간 산학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전남대와 굿센이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생명과학 기술학부 강형식 교수가 개발한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제'를 굿센의 자회사인 ㈜굿셀라이프에 기술이전했다.

굿셀라이프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뒤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모 제약회사와 공동 임상시험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굿센은 지난해 11월 전남대 내 벤처기업인 ㈜프로셀에 29억원을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견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 신약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굿센은 또 기술이전을 받아 회사가 성장한 대가로 전남대에 발전기금을 기탁했고, 전남대는 회사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화합의 릴레이로 이어졌다.

굿센 김상현 대표는 21일 전남대



전남대 강정재(왼쪽에서 세번째) 총장은 21일 총장실에서 '산학협력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김상현(가운데) 굿센 대표, 박승진(오른쪽 세번째) (주)에스피시스텍 경영고문, 고재철(오른쪽 두번째)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등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를 방문, 강정재 총장에게 "생명과학 기술학부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전남대 교수들의 기술력이 기업 성장에 큰 몫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대도 굿센의 발전기금 기탁에 화답해 이날 김대표를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각각의 전문 분야인 사업·연구 노하우를 공유해 기업과 대학 모두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생 파트너십의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금융권에도 '女風'

지난해 취업자 10명중 6명이 여성

채용인원의 40% 경력직

지난해 금융권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여성이었고 전체 채용인원의 40%는 경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산하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1월8일~3월9일 금융권 6개 업종(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 선물회사) 16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06년 중 인력채용 결과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기관의 지난해 전체 채용인원은 1만9천51명이고 권역별로는 은행이 9천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4천951명, 증권·선물 4천279명, 자산운용 750명 등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가 전체의 59.5%인 1만1천343명이었으며 업종별 여성인력 채용 비중

은 은행(70.1%)이 가장 높았고, 보험(62.7%), 증권·선물(38.9%), 자산운용(29.1%) 등의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금융권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실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은행들의 창구 영업직 여성 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체 채용인원 중 신입직원의 비중이 58.4%, 경력직원이 41.6%였으며, 국내 금융기관은 신입직원의 채용비중(63.9%)이 더 높은 반면, 외국계 금융기관은 경력직원 채용비중(71.3%)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산운용사의 경력직 채용비중이 85.1%로 가장 높았고, 증권·선물 59.2%, 보험 49.6%, 은행 25.4% 등으로 집계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예비엄마 태교음악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2일 백화점내 9층 롯데시네마에서 예비 엄마를 위한 태교음악회를 열고 재즈 오중주(퀸텟) 공연 등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백화점 봄 브랜드 세일

이번주 주말부터 돌입 이류 할인율 10~60%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브랜드 세일과 봄 정기 세일을 잇따라 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브랜드 세일을 한 뒤 월말부터는 4월 15일까지 봄 정기 세일을 실시한다.

백화점의 봄·가을 정기 세일은 '떨이'가 많은 여름·겨울 세일 때에 비해 참가율이나 세일 폭이 작으며 이번 세일에는 예년보다 여름 옷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유명 브랜드 세일을 실시한 뒤 30일부터 4월15일까지 17

일같은 정통대 바겐세일을 진행한다.

입점 브랜드의 50~60%가 세일에 참가하며 할인율은 10~30%이다.

광주신세계는 24일부터 7일간 브랜드 세일을 실시한 후 30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해외 봄맞이 정기세일을 연다. 브랜드 참가율은 10~30%로 할인율은 브랜드 세일시 60%, 정기 세일에는 70%가 적용된다.

현대백화점은 이미 지난 9일부터 남성 의류 브랜드 세일은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식품과 명품을 제외한 상품군에서 할인율 10~30%로 브랜드 세일에 돌입한다. 또 4월 봄 정기 세일 기간에는 '로렌 10년 젊어지다'를 주제로 '안티 에이징 푸드 모음전'을 연다.

/정필수기자 bungy@

담합 들통 교복, 값 내린다

메이저 4社 여름 교복값 대상 소비자가 15~20% 떨어질 듯

교복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SK네트웍스, 에리트베이지, 아이비클럽, 스크룩스 등 4개 회사는 22일 여름교복 출고가를 작년보다 5~9%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 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회사의 출고가 인하 결정을 밝힌 뒤 총련과 대리점에서 각각 5~6%를 인하하면 소비자가는 15~20% 정도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교복 값은 지난

해 7만5천원~9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적은 6만5천원~8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전체적으로 200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련정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아직 총련이나 대리점과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출고가가 내려가면 총련이나 대리점에서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네트웍스(스마트)는 출고가를 최소 5% 인하, 아이비클럽은 9% 인하, 에리트베이지(엘리트)는 6% 인하, 스크룩스는 5% 정도 인하하기로 했으며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과 원가상승률까지 감안한 실제 인하율은 13%~15% 이상이라고 업체측은 주

장했다. 이번 결정을 위해 전국 1만 818개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지난 1월 각 교복업체에 교복 원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교복값에 거품이 많다'고 판단, 지난 8월 4개사 관계자와 한 자리에서 만나 가격 인하를 검토해 왔다.

총연합회는 추후 춘추복과 겨울교복 값 인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이들 4개사를 제외한 500여개 중소기업체에도 가격인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 대표기구인 한국교복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교복, 급식, 앨범, 운동복, 현장학습비, 모의고사 비용도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스

조선 등 지역 전략산업 세무조사 유예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의 "따뜻한 세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돕기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광주청 관내 전략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간편 조사,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 편의를 제공기로 했다. 대상 전략산업은 광산업, 조선산업, 전문디자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다른 지역에서 호남으로 이전한 기업, 광주청장이 전통업소 및 향토문화업소로 지정한 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 숫자는 광주 2천545개, 전남 2천634개, 전북 2천430개 등 모두 7천609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소매유통경기 '봄오는 소리'

소비심리 회복세

최근 환율과 유가가 안정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전자상거래·방문판매·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RBSI, 기준치=100)는 '105'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염홍철 中企특별위원장 하남 산단서 업무 보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23일 하남산업단지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는다.

이노비즈기업·벤처기업 등 15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중

특별위원회 정책심의관의 보고에 이어 자유토론과 대정부 건의, 관계자들의 답변 등이 마련된다.

이에 앞서 염홍철 위원장은 하남산단내 무진기연·영화산업 등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새로 발명한

박목영프론트동봉

용량오류

신뢰성 향상

제품명

목재 ₩20,000원 PPC ₩15,000원

상당전화 TEL.062)672-2002, H.P.011-609-0450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떡상한과

061-383-8283